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0년 6월 7일 (첫째 주일)

성경본문 : 에베소서 4장 13-16절

설교제목 : “성화”

우리는 구원의 이미와 아직의 구조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칭의적 구원을 완성하면서 이 땅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성화란 의롭다라고 칭함받고, 의로움을 완성해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과정이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화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바울은 성화의 과정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합니다.(13절) **‘온전한 사람’**이란 **‘영적으로 완전히 자란, 영적으로 성숙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성화의 과정은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결코 성화와 분리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을 좀 더 부연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숙함의 충만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즉 신적 충만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그리스도화(化)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성화의 목표를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15절) 본문에 **‘범사에’**로 번역된 **‘타 판타’**는 **‘모든 분야’, ‘모든 면에서’**란 뜻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는 자신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행위 등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더불어, **‘자랄지라’**는 표현은 성화의 과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13절) 믿음과 지식의 통일성입니다. 이것은 우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른 지식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 위에 바른 믿음이 세워집니다. 더불어 **‘아는 일’**로 번역된 **‘에피그노시스’**는 **‘깊은 지식’**입니다. 깊은 지식이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알아갈수록 얻어지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에 관하여 바른 지식을 갖는다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이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떤 삶의 결과가 뒤따릅니까?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14절) 또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합니다.(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은 직역하면, **‘오직 사랑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직 사랑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아가페적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험되는 사랑입니다.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결과가 아가페 사랑입니다. 성화는 아가페적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페적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지식과 총명이 필요합니다.(빌 1:9) 여기서 지식이란 바로, **엡4:13의 ‘아는 일’**과 같은 단어로써 경험적인 깊은 지식입니다. 그리고 총명은 분별력입니다. 깊은 지식과 분별력은 아가페 사랑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 결과 아가페 사랑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빌1:10)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결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이란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듯 사는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듯 삽니다. 아가페적 사랑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화는 아가페적

사랑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성화적 삶을 위해 하나님은 교회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16절) 성화는 성도의 유기적인 성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서로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성화의 과정은 개인적인 과정이기도 하고, 공동체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성화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적 성화도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세워가는 성화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최우선적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의 목회자와 리더들은 모두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엡4:11-12) ‘온전케 하다’로 번역된 ‘카타르티스몬’은 ‘원래 있던 제자리로 되돌리다’는 의미로써, ‘탈골된 뼈는 제자리에 맞추어 놓다’는 의약 용어로 쓰였습니다. 결국 온전하게 하는 것은 성도를 제 위치에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를 제 위치에 세우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엡4:12) 결국 한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그 전제가 각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제자가 되는 일에 온 힘을 다해 수고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28-29을 봅시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따라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도록 자극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훈련하는 일입니다. 그러할 때, 주를 위해 살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목적은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온전한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역공과를 가지고 스스로 묵상하시거나, 구역마다 대화방을 만들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성화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 3)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4)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 왜 교회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신앙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왜 성화 즉 온전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불어 당신의 삶과 신앙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성화, 온전케 됨, 제자 됨입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최우선의 자리에 있는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